

2013년 3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3.3.28(목) 15:00~16:30

1. 4월 회의 개최 관련

- 4월 25일(목) 오후 3시, 7층 대회의실에서 회의 개최
- 박영상 위원장은 위원수에 대해 언급.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보궐위원 추가 위촉 없이 총 10명을 임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위원들에게 말해. 위원들도 동의하는 분위기
- 박영상 위원장은 송현승 사장 선임, 이상목 위원 차관 임명, 홍승용 위원 총장 선임, 최종준 위원 사무총장 유임 관련해 4번의 식사가 예정돼 있다고 말해. **회사도 위원들과 사장 및 임원 식사 자리 마련 검토 필요**
- 최종준 위원이 회의 때 매 달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논의하자고 제안. 이에 박영상 위원은 초기에 나왔던 의견으로 직접 해본 결과 쉽지 않았다고 고민해 보자고 함

※ 관련 내용

▲ 최종준 위원

- 시청자 위원회를 진행할 때 한 달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추가로 매 달 한 가지 주제를 미리 알려주고 각자 생각해 온 뒤 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 또한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

▲ 박영상 위원장

- 초기에 나왔던 의견으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지켜보다 보니 난잡하게 돼 어려워. 다들 분야별로 전문가들이라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편집에서도 무겁게 생각할 수 있어 언론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좋은 의견이나 멋진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 고민 중

2. 위원 주요 발언 내용

1) 진행자, 기자 등 용어 선정 유의하고 품위 단정해야

▲ 박영상 위원장

- 김민혜 문화부 기자는 패션쇼 보도를 하는데 말 한마디에 영어가 두마디씩 들어가. 옷 입은 모습도 현란해. 문화 쪽 방면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시청자들에게는 불필요해. 뉴스Y가 1년이 지났으니 "사람이 없습니다"라고만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품격을 신경써야

▲ 홍승용 위원

- 워싱턴 특파원의 신속한 빠른 보도 좋아. 그러나 이북사람 발음이어서 거슬러

▲ 김정연 위원

- 오후 5시에 '맹찬형의 시사터치'에서 맹찬형 앵커 발음이 부정확해. 대담자 말이 길어질 경우 추임새가 있는데 "네 그렇군요"라고를 반복해서 말해. 추임새도 다르

게 해야. 그러나 진행은 잘하고 재치가 있으며 답변도 잘 이끌어내고 있어

▲ 임영호 위원

- '신율의 정정당당'에서 신율 진행자 복장이 거슬러. 대담자는 정장을 입고 앉아 있는데 신율은 가디건을 입고 자세도 바르지 못해. 또 질문을 했으면 들어야 하는데 자꾸 꺼들어. 침착하고 냉정함 유지해야

2) 자막 처리 및 용어 사용 개선해야

▲ 홍승용 위원

- 중국 거버넌스가 바뀌었는데 뉴스Y 보도 시 중국, 영어, 한국말을 섞어서 해. 식약청은 FDA이라고 하고 해양청을 해양국이라고 해. 해양청이 맞고 미국도 장관을 비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비서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용어 맞게 사용해야

▲ 차경애 위원

- 아나운서 질문은 자막 처리로 이해가 쉬었는데 양미강 출연자의 경우 자막처리를 하지 않아. 출연자 말도 요약 정리해서 자막처리 했으면
- 시청자위원으로서 뉴스Y를 연합뉴스가 만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흐르는 자막에 '연합뉴스 실시간 주요 뉴스'라고 나오는 것을 보고 순간 뉴스Y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이 들어. 잘 알고 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혼란스럽지 않겠나 생각해

▲ 김정연 위원

- 한 화면에 뉴스Y 로고가 여러개가 떠. 우 상단에 뜨고 좌 하단에 큐브가 있고 전화 연결 시 스마트 폰 모양으로 뜨고 있어. 어떤 경우에는 세 개가 한꺼번에 떠서 어지러워. 화면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 같아 개선 필요
- 웨더Y를 날씨Y로 고쳤듯이 한글로 뉴스와이라고 쓰지 말고 뉴스Y에서 Y는 심볼로 고를 써야

3) 속보 등 보도 신속성 문제 있어

▲ 김정연 위원

- 속보가 20~30분 늦어진 적이 있어 큰 낙종이라 생각. 3월 14일 여수 대림 폭발 사고 관련해 KBS 프로그램 시청 중 10시 15분께 속보 자막이 나와. 바로 뉴스Y를 봤더니 지구촌 화제 방영 중. 뉴스Y는 35분이나 늦은 10시 50분께 속보 자막이 떠. 굉장한 낙종이라고 생각하며 연합뉴스도 큰 낙종을 했다고 생각. 전에 속보가 나갔는지 확실치 않지만 회사에서 이와 관련해 알고 있는지 궁금해

▲ 임영호 위원

- 성접대 사건 관련해 동아일보에서는 검찰이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보도. 조선은 실명까지 거론하며 보도하고 지상파는 이미 확보됐다고 나와. 그러나 뉴스Y는 아직도 동영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해. 뉴스Y는 확보된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단정적으로 밝히기 어려웠던 것인지 보도의 신속성에 문제 있어

▲ 최종준 위원

- 최근 이슈에 대해 지상파, 종편 등 여러 매체가 비슷하고 동시다발적인 보도. 이때 뉴스Y가 좀 더 빠르고 정확한 뉴스, 심층 분석을 통한 유익한 뉴스를 전달, 전문가 섭외에 신중을 기해서 차별화해야

4) 단순 반복적인 보도에서 벗어나 심층 보도해야

▲ 차경애 위원

- 현장 학습비 한도 관련해 서울 송파가 충북의 12배라는 기사가 나가. 그래프로 잘 보여주고 위반 시 처벌에 대해서도 잘 보여줘. 그러나 어린이집 성격이나 항목 등의 비교가 없었으며 입학금의 차이가 난다는 보도 관련해서는 입학금 사용 용도 내용이 없어서 아쉬워
- 날씨를 시간대마다 보여주고 있는데 계절을 건강과 연관해 내보냈으면. 춘분에는 나뭇잎에 대한 건강 지식을 알려줬으면 좋아. KBS 경우 언급해줘
-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재판의 방청권이 6천달러인 점은 흥미로워. 동성결혼 금지법이 미국 50개주 가운데 몇 개가 입법화 됐는지 미국 외 허용하는 나라가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다뤘으면

▲ 임상혁 위원

- 뉴스Y에서 종합토론을 방송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해
- 소설이 너무 많아. 4명의 기관장을 비교해 봤을 때 금감원, 국세청장은 맞췄으나 금감위, 공정위원장은 다른사람이었고 전경련 회장도 완전히 달라. 또 마약, 고위층 등 연루에 대한 보도도 추측성 소설이 많아. 흥미 위주로 시청률 올릴 수는 있으나 팩트가 아니어서 신뢰성에 영향 미칠 수 있어
- YTN이 저물고 있는데 추격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 MBN에 대해 고민해야
- 다른 방송사 관계자에 뉴스Y에 대해 문의해 본 결과 연합에서 기사를 받아 쓰다 보니 뉴스Y는 3분이 넘는 경우가 많다며 짧게 각색해서 내보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함

▲ 김정연 위원

- 영상매체로서의 영상 기능을 신경써야. 연합뉴스의 의존도가 높아 그런지 몰라도 영상을 함부로 다루거나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 지방 뉴스 중 울산 동해에 고래크루즈 관광에 대해 보도하면서 관련 영상이 나오지 않아. 자료 화면이 없으면 빼야
- 정보 전산망 마비 관련해 뉴스Y 빨리 보도해. 특히 신한은행 창구를 보여주는 등 현장 보도 잘해. 현장 배치는 잘 했는데 전문가 초청에서 정치하던 사람이 나와. 다른 곳은 해커출신 불러. 정치하는 사람을 불러서 현상만 훑고 지나가는 것은 문제 있어

▲ 한박무 위원

- 자료화면도 확보되고 앵커 진행이나 화면 구성 등이 상당히 틀이 잡혀. 프로그램도 상당히 자리 잡아
-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종편, 보도채널들이 정치시사 뉴스 토크쇼의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 '맹찬형의 시사터치'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진단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의도는 좋으나 대부분이 정치 아이템. 정치에 너무 많이 편향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문제가 중요해. '뉴스1번지'나 '맹찬형 시사터치'에 경제 문제 집중해서 다뤄야

▲ 김경모 위원

- 뉴스Y는 국제 뉴스가 강점인데 부정적인 뉴스 일색. 교황 관련된 훈훈한 소식이 있어 나름대로 괜찮아. 훈훈하고 경외감 느낄 수 있는 기사를 보게 돼 기분 좋아

- 북한 최고 수준의 전투태세 지령을 내렸다는 등 북한이 한국 언론을 이용해 고도의 심리전으로 불안감 조성하는 것 같아. 지상파는 오히려 붕 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물러서서 팩트 위주로 가는 것은 괜찮아. 냉정하고 객관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 유지해야
- MB정부와 차별화로 녹색이라는 것이 사라져 기사 나와. 제목이랑 기사 느낌이랑 달랐으며 흥미 위주로 가 아쉬워. 왜 녹색이라는 것이 사라졌는지 국정 철학이나 부서별 정책방향들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 4대강 생태계 변화 관련한 보도는 문제제기 하는 측면에서의 기사는 좋으나 반대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공정성 측면에서 환경부, 국토부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담아줄 필요 있어
- 뉴스1번지에서 이상돈 교수 지칭할 때 전 중앙대 교수라고 했는데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및 정치쇄신특위 위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맞아. 유념해야

▲ 이석구 위원

- 남북 관련 뉴스에서 제재와 반발이 계속 반복. 국민들 무감각해 질 수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 같이 나와야
- 뉴스가 메인뉴스 위주로 가는데 다양한 계층을 담을 수 있는 뉴스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장애인, 이주민, 동성애 문제 등도 해당될 수 있어

▲ 박영상 위원장

- 경제기자가 가계부채에 대해 조 단위로 된 지표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기사는 쉽게 써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중학교 아이들에게 경제를 설명해 주는 식으로 기사를 써야 알맹이도 있고 쉽게 쓰는 기사다” 라고 말해.
- 일기예보에서 비가 왔을 때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전문가가 나와 말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 뇌졸중 지수, 빨래 지수 등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날씨 보도를 생활정보로 승화시켜야
- 구성된 사실이나, 반영된 사실이나 싸우는데 요즘은 구성된 사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설명을 해야.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사를 써야 공정성, 객관성, 사실성들이 이야기 될 수 있어. 별장에 대한 단순한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화면을 보낼 때 침대, 수영장 등을 보여주는 것은 선정적, 과장, 확대, 거짓. 사건 보도에 대한 이야기는 많으나 알맹이는 없는 것 같아. 기자들이 무엇을 왜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스스로 묻고 답해야
- 안철수라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현충원에서 장관급 대우해 줘.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비판을 해야. 새 정치를 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메신저가 아니라 뉴스가 돼야
- 박시후 등을 공인이라고 하는데 유명인이지 공인은 아님. 미국에서는 퍼블릭오피셜과 퍼블릭피규어랑 구분을 짓고 있어. 용어 구분해서 달리 사용해야
- 완벽한 것을 할 것인지 품격있는 뉴스를 할 것인지, 속보를 할 것인지 피상적인 것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길게 보면 완벽하고 점잖고 품격있는 뉴스가 이긴다고 생각

▲ 최종준 위원

- 기획력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이 일부로 찾아보는 채널로 성장해야
- 최근 심층보도의 분량이 줄고 단편보도 중심으로 뉴스가 구성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 심층보도는 보도채널의 핵심으로 심층보도 좀 더 강화시켜야

- 뉴스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진지함과 경쾌함이 함께 어우러져야. 보도채널이란 이유만으로 진지함만을 추구한다면 시청자들에게 외면 받고 반면 가벼운 느낌이 지나치면 신뢰성을 떨어뜨릴 위험있어
- 최근 스포츠 뉴스를 보면 프로스포츠나 몇몇 유명 스타선수들에 관한 뉴스에만 치중. 비인기 종목 등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취재 비중을 늘려야
- 간혹 뉴스앵커 뒤의 모니터 배경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산만할 때가 있어. 이런 배경은 시청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피로하게 만들 수 있음

5) 뉴스 및 코너 편성 개선해야

▲ 홍승용 위원

- 신간 책 소개가 굉장히 좋아. 시간대 별로 했으면 하고 특히 낮 시간대에 했으면

▲ 박영상 위원장

- 뉴스 편성을 보면 날씨, 스포츠, 정치 사건이 체계가 없어. 시청자들이 기억할 수 있게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6) 홈페이지 새 단장 및 SNS 운영 등에 대한 의견

▲ 이석구 위원

- 인터넷 사용 시간 증가하고 TV 시간 줄어. 홈페이지 등 인터넷 관련 정보 제공하는 툴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 뉴스Y 페이스북을 등록해 보고 있어. 기사에 따른 댓글도 없어 아쉬워.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 차이를 두며 운영해야. 특히 블로그 등은 취재 현장의 이면들 주변 현장 분위기 전해야
- 장애인 차별성 금지법에 관련한 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해 뉴스Y 홈페이지를 검토해. 결과는 소송감으로 매우 심각해. 작성해 온 것을 참고하며 홈페이지 개선 시 반영했으면

▲ 김경모 위원

- 1년 내내 홈페이지 개편해 달라고 했는데 개선된 것을 보니 고마워. 첫 느낌은 깔끔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괜찮았는데 문제점은 차츰 살펴볼 예정
- 뉴스는 연합뉴스를 주로 보고 있어. 이번 뉴스Y 개선된 홈페이지를 보며 자꾸 어디서 봤다는 생각이 들어. 연합뉴스와 너무 비슷해. 뉴스Y만의 고유한 뉴스터치를 발견하지 못해. 고유성이나 독자성이 들어나지 않아
- 네이버가 인터넷에서 뉴스 트래픽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SNS, 스마트폰 뉴스앱 서비스로 옮겨간다는 얘기가 자체적으로 나오고 있어. SNS, 뉴스 모바일 앱 서비스를 연동해서 수용자층과 창구 다변화 할 수 있는 작업해야

▲ 한박무 위원

- 홈페이지 개선했으나 성의 없어보여. 프로그램에 날짜가 없고 최근 방송을 볼 수 없어

▲ 임상혁 위원

- 홈페이지 굉장히 발전해. 그러나 경제 기사 찾아봤는데 분석 기사가 별로 없어. 팩트만 보도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양측의 입장을 분석한 보도가 없어

▲ 최종준 위원

-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쉽고 빠르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한 점과

- 프로그램 소개, 진행자 소개 등을 볼 수 있어 좋아
- '앵커소개' 섹션을 통해 앵커들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이 엿보여
- '기사제보' 코너를 통해 아직 사회에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좋아.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사건사고 및 문제점에 대해 보다 발 빠른 취재를 해 줬으면
- '속보' 코너를 홈페이지에 마련하여 앞서가는 보도채널 이미지를 구축 하려는 시도가 좋음. 하지만 속보의 분류에 신경 써야
- 뉴스 콘텐츠를 SNS, 유튜브, 모바일 등 새로운 매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할 필요가 있음

7) 긍정적인 평가

▲ 차경애 위원

- 안젤리나졸리 전쟁 성폭력 난민 캠프를 보여줬는데 영상 편집이나 내용 좋아
- 각 나라의 전기 끄는 행사 모습. 인터뷰를 통해 핵심 메시지를 잘 전달했다고 생각

▲ 최종준 위원

- 화면 구조, 색감, 자막, 그래픽, 음향 등이 종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부드러워져
- 뉴스Y만의 풍부한 지역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지역 뉴스 콘텐츠가 다양하게 구성해
- 전화연결, 현장연결, 중계차 등 다양한 생중계 시도를 통해 보도채널만의 속보성이 돋보이며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
- 경제뉴스를 다룰 때 다양한 전문가가 출연해 현 실태(ex 농수산물 유통비용 거품실태, 선택 진료 등)에 대해 알기 쉽게 풀이하고,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는 코너 매우 유익해

8) 기타

▲ 홍승용 위원

- 세계해양포럼 관련해 뉴스Y에서 연락이 와. 케이블에서는 포럼을 잡는 것이 이슈. 조선은 아시안리더쉽, 매경은 세계지식포럼이 있어. 벤처 포럼도 있으니 뉴스Y도 협업하면 좋지 않을까. 세계해양포럼이 1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뉴스Y와 공동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 임상혁 위원

- 뉴스Y가 YTN에 비해 기자 인력이 3분의1 수준. 적은 수로 선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을 충원해야

▲ 임영호 위원

- 아침 7시 뉴스를 보는데 보험 광고가 지속되고 있어. 7시 5분까지 광고가 지속되다 보니 채널을 돌리게 돼 아쉬워. (끝).